

고소설의 원형적 텍스트로서의 『도장』(道藏) 연구 시론^{*,**}

김수연

(한국학중앙연구원)

1. 시작하며

『도장』¹⁾은 다수의 도가서와 도교경전을 모아놓은 총서이다. 그러나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B5A02024433).

** 이번 논문은 ‘『도장』(道藏)과 고소설에 나타나는 도가적(道家的) 상상력의 근원과 유형 연구 : 공간·사람·생사관을 중심으로’라는 기획의 첫머리에 해당한다. 고소설 분야에서 다소 생소했던 『도장』에 대한 이해와 소설적 상상력과의 관련성에 대한 개괄을 바탕으로, 향후 구체적인 논의로 진입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도장』이 우리의 원천적 사유와 관계있음’에 대한 지지와, ‘고소설 연구의 다각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격려, 그리고 이후 작업의 논리적 보완을 위한 금언(金言)을 해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1) 원래 이름은 일체도경(一切道經)이다. 송나라 이후 ‘도장’이라 약칭하게 되었다.

주제어: 『도장』(道藏), 도교, 도가적 상상력, 고소설, 비교서사학, 서사적 원형
Daozhang(道藏), Taoism, Taoist imagination, classical novel, comparative narratology, narrative prototype

『도장』은 단순한 종교사상서로만 볼 수는 없다. 『도장』은 그 자체로 방대한 사유와 이야기의 보고(寶庫)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속에는 다양한 이미지와 상상체계가 들어 있으며, 동양인들에게 유전되는 철학적 경험과 삶의 진실이 다양한 기법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글에서 『도장』을 서사적 상상력의 근원으로 주목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도장』이 지닌 설화성과 그것의 자기구현방식은 특히 고소설의 소설적 환상성과 세계관 및 서사미학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그렇기에 서사적 상상력의 원형이자 풍부한 사례로 『도장』에 접근하는 것은 서양에서 문학의 원형을 고대신화에서 탐색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닐 것이다.

기실 김시습과 허균의 문학을 비롯하여 한국 서사문학과 도교사상과의 관계 및 도가적 상상력을 점검한 논의가 적지 않았다.²⁾ 그러나 이상의 연구들은 대체로 단편적인 화소를 중심으로 도교사상을 추출하였고, 근원 탐색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는 도가의 역사적 위상과 관련이 있다. 소설이 부흥했던 조선시기, 도가는 관방에서 인정하는 종교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했기에 정식 교단을 설립할 수 없었

2) 김수연(2011), 「만복사저포기의 ‘입산채약’과 비극성 재론」, 『문학치료연구』20; 「소통과 치유를 꿈꾸는 상상력, 속향전」, 『한국고전연구』23; 서용규(2000), 「‘수이전’에 나타나는 도교문화적 양상」, 『가야대학교 논문집』9; 안동준(1998), 「김시습 문학과 도교사상」, 『국문학과 도교』; 정재서(1998), 「한국 도교문학에서의 신화의 전유」, 『아시아문화』14; 김재웅(1998), 「가문소설에 나타난 도가사상 - 『천수석』을 중심으로」, 『국문학과 도교』; 김혜옥(1990), 「연암소설의 도교사상적 고찰」, 숙명여대 석사논문; 박영호(1990), 「허균 문학에 나타난 도교사상 연구」, 『동아시아 문화연구』17; 김용범(1988), 「영웅소설에 나타난 도교사상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이춘기(1983), 「삼한습유연구 : 도교적 논리와 구조를 중심으로」, 한양대 석사논문; 최창록(1982), 「신선전과 신선소설 장르의 설정」, 『인문과학연구』1; 이상영(1981), 「심청전 연구 : 도교사상을 중심으로」, 한양대 석사논문; 유승국(1979), 「매월당의 사상과 문학 : 매월당의 유학 및 도교사상」, 『대동문화연구』13; 김용덕(1979), 「구운몽의 사상적 배경연구 : 도교사상을 중심으로」, 한양대 석사논문; 최삼용(1978), 「남궁선생전에 나타난 도선사상 연구」, 『한국언어문학』16. 이 중 정재서의 논의는 상상력의 기원에 대한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으로 평가된다.

다. 또한 불경처럼 국가차원의 대대적인 경전언해 등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도가의 사회적 위상이 문학연구에도 일정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필자는 궁극적으로 고소설의 서사적 상상력의 원형으로서 『도장』의 의의를 밝히고자 하지만, 이번 글에서는 그 전사로서 『도장』 자체에 주목할 것이다. 이는 앞서 보았듯 문학에 구현된 사상과 기법의 원형을 논하는 데 있어 『도장』이 지닌 의의가 적지 않음에도 그동안 『도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바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서사문학이 한국에 비해 이른 시기에 시작되었고, 지금까지도 문학적 전통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지괴와 전기(傳奇)가 이미 육조와 당대에 성행하였다. 특히 당대(唐代)는 도교가 황제의 비호를 받으면서 국교(國敎)로서의 위상을 지녔던 시대이다. 따라서 지괴와 전기를 연구하는 학자의 경우 작품에 나타난 도가적 성격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지괴와 전기는 이후 소설과 희곡 등의 서사문학에 지속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따라서 중문학계에서는 소설과 희곡 작품에 투영된 도가적 성격에 대한 연구는 물론 도가서 자체에 대한 문학적 연구가 국문학에 비해 양적으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³⁾ 그러나 이들 연구 또한 대체로 문학작품 자체에 수용된 도가적 화소를 확인하는 차원의 논의들이고, 도가서 연구의 경우는 대부분이 텍스트를 개괄하는 작업이라 표면적 내용과 구조적 특징 소개하는 차원에 그치면서, 보다 심화된 문학적성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문학적 원

3) 자세한 서지사항은 생략하고 여기에는 해당 작품과 연구자만 나열하였다. 『홍루몽』(김경옥, 2000; 상기숙, 1999), 원대 신선도화극(유기돈, 2008), 당대 지괴소설(윤하병, 1994; 송정화, 2002), 당대소설(정민경, 2009), 원 잡극 팔선희(김도영, 2001), 『요재지이』(배병균, 1997), 탕현조 문학(박종학, 2010) 등이 있다. 갈홍의 문학사상(초화숙, 1991; 정재서, 1996), 『열선전』(정선경, 1996; 김장환, 1996), 『한무내전』(김경아, 1998·2009), 『음부경』(강민구, 2005), 『박물지』(노민영, 1997), 『현괴록』(정민경, 1998), 『속현괴록』(김갑숙, 2004), 『태평경』(정재서, 1994), 광박의 사상(양승덕, 2006), 『산해경』(정재서, 1986).

형탐색의 기반을 다지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기실 중국 학계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중국은 도가사상의 역사적 위상이 한국에 비해 높고, 도가서에 대한 관심도 크지만 그럼에도 도가서 연구는 그동안 종교사상 연구에 경도되어 있었다. 이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유럽의 경우 이미 16세기부터 중국 도가사상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고, 현재는 프랑스와 일본을 중심으로 각지에서 도가사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도교 자체의 연구에 비해 문학의 근원으로서의 도가사상을 고찰하는 작업은 아주 최근, 극소수의 학자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⁴⁾ 게다가 이들이 주목하는 것은 주로 육조시대의 시문학이고, 소설은 중국의 도가문학사를 일람하는 과정에서 간략히 그 관련성을 설명하고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국가차원의 지원 아래 대대적인 『도장』 정리 사업이 완성되어 향후 도가서 연구가 보다 광범위하고 심도 깊게 이루어질 것이며, 그 과정에서 도가서의 문학적 및 도가서와 작품 간의 문학적 기원 문제도 충분히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⁵⁾ 본 연구는 이를 준비하는 예비 작업이며, 소설적 상상력의 원형과 기원으로 『도장』을 염두에 둔 연구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4) 鄭天星(2002), 『國外的道藏研究』, 『國外社會科學』, 第3期.

5) 2012년부터 중국 안휘대학에서 『도장』 소재 소설자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汪小艷(2012), 『道藏中的唐代小說研究』, 安徽大學 碩士論文; 潘燕(2012), 『道藏中的宋代小說研究』, 安徽大學 碩士論文; 周芹(2012), 『道藏中的元代小說研究』, 安徽大學 碩士論文.

2. 『도장』의 성립과 편찬사⁶⁾

『도장』은 도가적 상상력의 결정체이며 동양 문학의 원형을 담고 있다. 『도장』이 불교의 대장경을 본떠 만든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남북조 시대인 471년 남천사도(南天師道)의 종장(宗匠)이었던 육수정(陸修靜, 406-477)이 편찬한 도교(道敎) 서적 『삼동경서목록』(三洞經書目錄)은 가장 빠른 불교 대장경보다도 앞선다. 대개의 『도장』은 유실되었고 현존하는 『도장』 중에 가장 이른 것은 명대의 판본으로, 현재 중국 국가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도교 서적이 정식으로 결집하여 ‘장’(藏)이 된 것은 당나라 개원(開元, 713-741) 때이다. 『개원도장』(開元道藏)은 중국역사상 최초의 정식 완전한 도장이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후 송·금·원·명·청의 모든 왕조가 『도장』을 편찬했다.⁷⁾

공식적인 『도장』 편찬 사업이 있기 전부터 도가서의 집성작업이 시도되었다. 앞서 말한 남조 유송(南朝劉宋) 때의 육수정, 『삼동경서목록』 편찬 이전인 위진(魏晉) 시대의 갈홍(葛洪, 284-364?)은 『포박자내편』 『하람』(遐覽)에 도가서적 600여 권을 수록하였고,⁸⁾ 양(梁)의 도홍경(陶弘景, 456-536)은 『경목』(經目)과 『태상중경목』(太上眾經目)을 편찬한 바 있다. 국가 주도의 『도장』 편찬은 당 현종 때부터이다. 그 대략을 개관하면 다

6) 『도장』의 편찬과 관련한 연구로는 조선희(1998), 「당 현종시기 도장 편찬에 관한 일 연구」, 명지대 석사논문; 金侖壽(2002), 「道藏輯要와 蔣予蒲」, 『도교문화연구』 17; 陳國符(1963), 『道藏源流考』, 北京 中華書局; 大淵忍爾(1969), 「道藏의 形成」, 『東方學』 38 등이 있다.

7) 당·송·금·원·명대에는 국가차원에서 『도장』이 편찬되었으나, 청대에는 여동빈을 신봉하는 계단도교(乚壇道敎) 천선파(天仙派)의 장여포(蔣予蒲, 1755-1819)가 사찬(私撰)으로 『도장』의 축소판인 『도장집요』(道藏輯要)를 편찬하였다. 金侖壽, 앞의 논문, 288-294쪽.

8)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 「도장총설」(道藏總說)에는 『포박자』 소재 도경(道經)의 총목을 6백 70여 종으로 기록하고 있다.

음과 같다.

◆ 『도장』 이전의 도서(道書) 목록

1. 위진(魏晉) : 갈홍(葛洪), 『포박자내편·하람』 소재 600여 권 도경(道經) 목록.
2. 남조 유송(南朝劉宋) : 육수정, 『삼동경서목록』
3. 양(梁) : 도홍경(陶弘景), 『경목』과 『태상중경목』
4. 남조 유송 : 맹법사(孟法師), 『옥위칠부경서목』(玉緯七部經書目)
5. 수조(脩朝) : 왕연(王延), 『현도관일체경』(玄都館一切經)
6. 당조(唐朝) : 윤문조(尹文操), 『옥위경목』(玉緯經目)
7. 당조(唐朝) : 현종(玄宗), 『일체도경음의』(一切道經音義)

◆ 정식 『도장』의 편찬

1. 당조(唐朝) : 현종(玄宗) 『개원도장』
2. 송조(宋朝)⁹⁾ : 진종(眞宗) 『만수도장』(萬壽道藏)
 왕흥약(王欽若, 1016년) 『대송천궁보장』(大宋天宮寶藏)
 휘중(徽宗) 『송녕중교도장』(崇寧重校道藏)
 『정화만수도장』(政和萬壽道藏, 1113-1114년)
3. 금조(金朝) : 장종(章宗) 『대금현도보장』(大金玄都寶藏)
4. 원조(元朝) : 초년 『대원현도보장』(大元玄都寶藏)
5. 명조(明朝) : 정통(正統) 10년(1445) 『정통도장』(正統道藏)
 만력(萬曆) 35년(1607) 『만력속도장』(萬曆續道藏)¹⁰⁾

9) 송대(宋代)에는 태종, 진종, 휘종 연간에 도장을 편찬하였다. 진종(眞宗) 대종상부(大中祥符) 9년(1016)에 왕흥약(王欽若)은 태종 시기의 도장(3,737권)을 증보하여 『보문통록』(寶文統錄; 4,359권)을 편찬하였고, 여기에 장군방이 또 다시 추가하여 『대송천궁보장』(大宋天宮寶藏; 4,565권)을 완성했다. 잔스창, 안동준 외 역(2011), 『도교문화 15강』, 알마, 215-216쪽. 송대의 도장은 유실되었으나 그 내용의 핵심은 『운급칠첩』에 실려 있다.

6. 청조(淸朝) : 장여포(蔣予蒲, 1755-1819) 『도장집요』(道藏輯要)
7. 현대 : 장계우(張繼禹, 2004년) 『중화도장』(中華道藏)
공봉정(龔鵬程) 『중화속도장』(中華續道藏)¹¹⁾

『도장』의 내용은 방대하고 복잡하다. 그 안에는 대량의 도교경전·논집(論集)·과계(科戒)·부도(符圖)·법술(法術)·재의(齋儀)·찬송(贊頌)·궁관산지(宮觀山志)·신선보록(神仙譜錄)과 도교인물전기(道敎人物傳記)와 제자백가서도 수록되어 있다. 그 중에는 이미 실전되어 찾아볼 수 없는 고적도 있고, 의약양생(醫藥養生)·내외단(內外丹)·천문역법과 관련한 고대과학기술서도 적지 않다. 또한 『도장』은 초기도교 교단인 태평도(太平道)¹²⁾와 천사도(天師道, 五斗米道)¹³⁾가 경전으로 삼은 『태평경』¹⁴⁾과 『노자도덕경』부터 이후 등장하는 도가서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에 따른 도교의 성격변화까지도 담아내고 있다. 일례로 위(魏) 나라 초기 도교 교단을 장악한 오두미도가 중시한 『노자상이주』(老子想爾注)¹⁵⁾

-
- 10) 『정통도장』은 경사도교사(京師道敎事)의 우두머리 소이정(邵以正)이 주관하였고, 『만력속도장』은 50대 천사(天師) 장국상(張國祥)이 총괄하였다. 『정통도장』과 『만력속도장』의 합본이 1962년 대북 예문인서관, 1988년 상해고적에서 영인 출간되었다. 수록된 도경(道經)은 1,510종이고 권수는 5천4백여 권에 달한다.
 - 11) 『중화도장』은 중국 대륙의 화하출판사(華夏出版社)에서 49권으로 간행되었고, 『중화속도장』은 대만 신문풍출판사(新文豐出版社)에서 20권으로 출판되었다.
 - 12) 한(漢) 성제(成帝) 때 감충가(甘忠可)의 『포원태평경』(包元太平經)과 이를 기초로 한 동한(東漢) 순제(順帝) 때(126-145) 우길(于吉)의 『태평청송서』(太平淸頌書) 170권을 교법의 기초로 삼은 교단이다. 태평도는 초기 한황(漢皇)의 개량과 혁신을 주장하고, 도를 행하고 덕을 알리며 나라를 흥성시켜 후세에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후 문단임협(墨團任俠)과 결합하여 황포기의(黃布起義)를 일으켰으나 실패하였다. 조선희, 앞의 논문, 5쪽.
 - 13) 태평도의 황건봉기 즈음에 장릉(張陵, 34-156)이 창시한 교단. 장릉 사후 그의 아들과 손자인 장형(張衡)과 장로(張魯)가 이어 정비하였다. 정일도(正一道)라고도 하며, 민간에서 일어났으나 조조의 위(魏) 나라에 투항한 후 상충종교로 변화하였다.
 - 14) 『태평경』은 최초의 도교 경전으로 알려져 있다.

는 기도와 제사를 중시한 반면, 동진(東晉) 말 갈홍의 『포박자』에 오면 단약(丹藥)의 복용을 통해 선인(仙人)이 되는 것을 강조한다.¹⁶⁾ 또한 구천사도(舊天師道)의 지배층이 분열된 후 북쪽의 도가세력을 규합하여 신천사도(新天師道)를 개창한 북위(北魏)의 구겸지(寇謙之, 365-448)가 쓴 『노군음송계경』(老君音誦誡經)¹⁷⁾에는 교법과 교단의 조직, 관리, 포교 활동 등의 내용뿐 아니라 삼세전생(三世轉生), 윤회설(輪回說), 장례의법(葬禮儀法) 등 불교의 영향을 받은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는 도교 본연의 불로장생 사상과 달라진 모습이다.¹⁸⁾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도장인 『정통도장』은 그 체제가 삼동사보(三洞四輔)로 되어 있다. 삼동사보는 『도장』의 기본 분류 체계로, 삼동(三洞)은 5세기 육수정의 『삼동경서목록』에서 처음 보이고 사보(四輔) 6세기 경에 추가된 것이다. 삼동사보를 기초로 한 『정통도장』의 조직을 도표화 하면 다음과 같다.

-
- 15) 『노자상이주(老子想爾注)』는 초기 경전의 교법을 설명한 것이다.
- 16) 『포박자』는 내편과 외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편이 신선사상을 집대성한 도교 관계의 전적이다.
- 17) 『정통도장』 동신부(洞神部) 계율류(戒律類). 신천사도(新天師道) 교단의 경전으로, 구겸지가 태상노군의 교계(敎敎)를 38조로 정리한 것이다.
- 18) 북쪽을 중심으로 유행하던 천사도(天師道, 오두미도)가 동진(東晉)의 남하와 함께 남쪽으로 전파되며 그 영향력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지도층이 분열되고 기존의 천사도에 대한 개혁을 꾀하는 움직임이 등장한다. 이에 강남에서는 상청파(上淸派)와 영보파(靈寶派)가 나타나 구천사도(舊天師道)의 개혁을 꾀했고 북쪽에서는 신천사도(新天師道)가 등장하였다. 신천사도를 개창한 북위(北魏)의 숭산도사(崇山道士) 구겸지(寇謙之, 365-448)는 태무제(太武帝)의 신임을 얻어 결국 신천사도는 북위 정권의 국교가 되었다. 구겸지는 상층 통치자의 요구에 맞게 기존의 도교를 개혁하였는데 삼장위법(三張僞法), 조미전세(租米錢稅, 오두미를 거두는 것) 및 남녀합기지술(男女合氣之術, 방중술)을 없애고 예도(禮度)를 주로하며 복식(服食)과 폐련(閉練)을 첨가하며 파인(巴人)의 원시 혼속 대신 유가(儒家)의 혼례법을 채용하였다. 조선희, 앞의 논문, 4-8쪽.

정통도장의 조직과 내용 ¹⁹⁾					
삼동사보		동(洞) 하위 12류	주요경전	교주	관할
3동	동진부 (洞眞部)	본문(本文), 신부(神符) 옥결(玉訣), 영도(靈圖)	『상청경』(上淸經)	천보군	옥청경
	동현부 (洞玄部)	보록(譜錄), 계율(戒律) 위의(威儀), 방법(方法)	『영보경』(靈寶經)	영보군	상청경
	동신부 (洞神部)	상술(象術), 기전(記傳) 찬송(贊頌), 표진(表奏)	『삼황문』(三皇文)	신보군	태청경
4보	태현부 (太玄部)	동진부 보좌	『노자도덕경』		
	태평부 (太平部)	동현부 보좌	『태평청송경』(太平淸頌書, 『태평경』)		
	태청부 (太淸部)	동신부 보좌	『태청금액신단경』 (太淸金液神丹經, 갈홍)		
	정일부 (正一部)	삼동 보좌	『정일법문』 (定一法文, 오두미도 계통 경전)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도장』의 편찬과 관련하여 시대별 도교의 교파 및 중요 도경을 표로 개괄하였다.

시기별 도교의 주요 교파와 도사 및 도경 편찬					
전국 시기	원시도가, 황로사상				
동한 말	태평도	천사도(오두미도)			
위진 시기 (317-420)		서촉	북위	강남	
		민간유전 서진 진서(陳瑞) 이특(李特) 범장생(范長生) 이홍(李弘) 이금은(李金銀)	동진 말 신천사도 구검지 (365-448) 『노군음송계경』 (老君音誦誡經)	동진 말 상청파	동진 말 영보파 갈현(164-244) 갈홍(283-346) 『포박자』

19) 잔스창, 안동준 외 역, 앞의 책, 203-238쪽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선희, 앞의 논문, 14쪽의 표를 참고하여 보완 수정하였다.

<p>남북조 (420-589)</p>			<p>위화존(魏華存) 양희(楊羲) 허밀(許謚)</p> <p>도홍경 (양, 456-536) 『진고』(眞誥) 『등진은결』 (登眞隱訣) 『동현영보진 영위업도』(洞 玄靈寶眞靈 位業圖)</p> <p>왕연(王延) (북주, ?-604) 『삼동주낭』 (三洞珠囊, 571-578)</p>	<p>육수정(陸修靜) (406-477) 『삼동경서목록』</p> <p>맹법사(孟法師) 『옥위칠부경서목』 (玉緯七部經書目)</p>
<p>수 (589-618)</p>		<p>왕연 『현도관일체경』(玄都館一切經) 왕원지(王遠知)</p>		
<p>당 (618-907)</p>		<p>왕원지(상청파 총사) 심사정(沈師正, 592-682, 상청파), 사마승정(司馬承禎, 647-735, 상청파) 이함광(李含光, 상청파), 광성(廣成)선생 두광정 고종(650-683) 『일체도경』 윤문조 『옥위경목』(玉緯經目) 현종(712-756) 『일체도경음의』, 『개원도장』</p>		
<p>송 (960-1279)</p>		<p>태종(976-997) 도장 왕흠약 『보문통록』(寶文統錄) 장군방 『대송천궁보장』(大宋天宮寶藏) 휘중(1101-1125) 『만수도장』</p>		
<p>금 (1115-1234)</p>		<p>태일교(太一敎), 진대도교(眞大道敎), 전진교(全眞敎) 『현도보장』</p>		
<p>원 (1279-1368)</p>		<p>정명도(淨明道)</p>		
<p>명 (1368-1644)</p>		<p>정명도 정통10년(1445) 『정통도장』 만력35년(1607) 『속도장』</p>		
<p>청 (1644-1911)</p>		<p>장원정 『도장집요』</p>		

3. 『도장』의 한국 유입과 향유

중국에서 도교교단이 성립되고 그 교세를 확대해가던 위진남북조 및 도교가 국가의 전폭적 지지를 받았던 수와 당 시기에 해당하는 삼국시대에, 한국에서도 도가사상 및 도교가 유행하였다.²⁰⁾ 도가사상의 한국 전래와 관련한 기록으로 624년(영류왕 7)에 당(唐) 고조가 고구려에 도사(道士)를 파견하여 천존상(天尊像)을 보내고 『도덕경』을 강론하게 한 일이 가장 이른다.²¹⁾ 그러나 이미 그 이전부터 고구려에서는 오두미교가 유입·유행되었다고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643년(보장왕 2)에는 연개소문(淵蓋蘇文, ?-665)이 주장하여 당에서 속달(叔達) 등의 도사와 『도덕경』을 들여와 도교를 유교나 불교보다 우위에 둔 적도 있다.²²⁾

신라의 경우 김유신과 그의 후손 김암(金巖) 등이 도교적 방술에 능통

20)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 『도가총설』, “그 처음 시작된 것은 고구려부터였으며 승조(勝朝) 고려를 가리킨다와 본조(本朝)에서도 그대로 따르다가, 본조의 중엽에 이르러 혁파되어 영영 없어졌다.” 고전번역원.

21)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영류왕 7년’, “봄 2월에 왕이 사신을 당에 보내 책력을 발급해 줄 것을 청하자, 형부상서 심숙안(沈叔安)을 보내와 왕을 ‘상주군 요동군공 고구려국왕(上柱國遼東郡公高句麗國王)’으로 책명하고, 도사를 시켜 천존상 및 도법(道法)을 가지고 와 노자를 강론하게 하였다. 왕과 나라 사람들은 이 강의를 들었다. 겨울 12월에 사신을 당에 들여보내 조공하였다.” 이강래 역(1998), 『삼국사기』, 한길사, 412-413쪽.

22) 이규경, 앞의 글, “『삼국사기』를 상고해 보면, 고구려 영류왕(榮留王)이 수 공제(隋恭帝) 의령(義寧) 2년에 즉위하여 당 태종 정관(貞觀) 16년에 연개소문에게 시해되었다. 그 해에 마리지(莫離支) 연개소문이 왕에게 이르기를 “유·불·선 삼교는 비유하면 마치 솔밭과 같은 것인데, 지금 유교와 불교는 아울러 일어났으나 도교는 성하지 못하오니, 청하옵건대 당 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도교를 구해 오소서.” 하니, 왕은 그 말을 따랐다. 영류왕 7년 2월에 당 나라에서 형부 상서 심숙안(沈叔安)을 보내어 왕을 책봉(冊封)하고 또 도사를 명하여 천존상(天尊像)과 도교를 보내와 노자의 『도덕경』을 강했으며, 8년에 사신을 당 나라에 보내어 불·노의 교법을 배우게 하였다. 보장왕 2년에 사신을 당 나라에 보내어 도교를 구하자, 황제는 도사 속달 등 8명을 보내고 겸하여 노자의 『도덕경』을 하사하였다.”

했다는 기록이 보인다.²³⁾ 또한 당나라에 유학했던 신라 지식인들에 의해 수련도교(修練道教)가 유입되기도 하였다. 최치원 문학에 나타나는 도가적 상상력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당시 당(唐)은 도교국가라 할 만큼 도가사상이 성행하였다. 조선 중엽 한무외(韓無畏)의 『해동전도록』(海東傳道錄)에 따르면,²⁴⁾ 당에서 유학한 신라 지식인들 가운데 김가기(金可紀)와 최승우(崔承祐) 등은 종리권(鍾離權)으로부터 도서(道書)와 구결(口訣)을 전수받았다고 한다.²⁵⁾ 중국의 도교전적인 장군방의 『운급칠첩』(雲笈七籤)²⁶⁾ 중 『속선전』에는 김가기가 최치원과 이청(李清)에게 구결을 전수하고 자신은 단을 이루고 당나라에서 백주등선(白晝登仙)했다는 기록이 있다.²⁷⁾ 그리고 최승우 등이 신라에 돌아와 후인들에게 도요

23) 『삼국사기』 『열전』 제1, ‘김유신 상’; 조재삼, 『송남잡지』 『기술류』 ‘용수은신’(龍樹隱身).

24) 한무외, 이종은 역(1998), 『해동전도록 청학집』, 보성문화사.

25) 이규경, 앞의 글, “또 수련에 대한 한 가지 말이 『전도록』 실려 있는바, 신돈복(辛敦復)이 그 일을 기록하였다. 인조 때에 한 중이 관동 지방에 놀러 갔다가 구류되어 관청에게 수색을 당한 결과 책 한권을 내놓았는데 제목을 『해동전도록』이라 하였다. 고을 원이 이 책을 택당 이식에게 보내자 택당은 위하여 한 글을 붙여 세상에 전하였다. 여기에 말하기를 “당 문종(唐文宗) 개성(開成) 때에 신라의 최승우·김가기와 중인 자혜(慈惠) 등이 당 나라로 유학 가서 종남 천사(終南天師) 신원지(申元之)와 교분을 맺었다. 신원지는 선인(仙人) 종리 장군에게 소개하니, 그는 말하기를 ‘신라에는 도교의 인연이 없어서 다시 8백 년을 지난 다음에야 마땅히 환반(還反)의 지결(旨訣)이 있어서 저들에게 선양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로부터 도교가 더욱 성하여 지선(地仙) 2백이 나와 온집이 하늘로 올라가서 신선이 되어 도교를 크게 할 것이다.’ 하고는 세 사람에게 도법을 전수해 주니, 『청화비문』(靑華祕文)·『영보필법』(靈寶畢法)·『팔두오악결』(八頭五岳訣)·『금고』(金誥)·『내관』(內觀)·『옥문보록』(玉文寶錄)·『천둔』(天遁)·『연마법』(鍊魔法) 등의 책과 구결이 있었으며, 또 위백양(魏伯陽)의 『참동계』와 『황정경』·『용호경』(龍虎經)·『청정심인경』(淸淨心印經)과 연등(燃燈)이 있는데 서로 전수하여 명맥을 전한다.” 하였다.”

26) 『정통도장』 태현부.

27) 조재삼도 당나라 심분(沈汾)의 『속선전』에 김가기가 신선이 되어 승천한 이야기가 있음을 전하고 있다. 『송남잡지』 『선불류』(仙佛類), ‘가기등선’(可紀登仙).

(道要)를 전수하여 수련도교가 한국에 전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록들은 그 신빙성을 떠나 도가사상의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음을 알려준다.

도가사상이 한국 전래에 대한 기록은 그와 관련한 도교서적의 유입을 방증한다. 『도장』 소재 도경의 유입에 관한 기록으로는 최치원이 도당 유학시절에 『참동계』를 얻었다는 것이다.²⁸⁾

최고운(崔孤雲, 최치원)도 당 나라에 들어가 환반(還反)하는 학설을 얻어 전하여 아울러 우리나라 단학(丹學)의 시조가 되었으니, 그 가장 뛰어난 것은 『참동계』의 16가지 구결이다.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 「도가총설」, 고전번역원)

높은 언덕에 올라 맑게 휘파람 불고, 푸른 강물 굽어보며 길게 노래했나니, 저분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나를 잊은 분이로다. 현빈(玄牝)에 통하여 증묘(衆妙)의 문을 스스로 얻었고, 약(藥)은 금단(金丹)을 단련하여 참동(參同)의 계(契)를 다시금 이었다. 물외(物外)에서 형신(形身)을 길러 곰처럼 매달리고 새처럼 뿔으며, 인간 세상의 구각(軀殼)을 벗어 매미처럼 허물 벗고 용처럼 변하였다. (정두경, 「청학동비명」(靑鶴洞碑銘), 『고운집』, 「고운선생사적」, 고전번역원)

『도장』은 도교의 기본 경전이면서 방대한 도교 관련 서적을 집대성한 총서이다. 『도장』의 구체적 유입은 늦어도 고려 예종 조를 넘지 않는다. 고려 예종 때의 대표적 도사라 할 수 있는 이종약(李仲若, ?~1122)이 어려서부터 『도장』을 탐독했다는 기록이 있다.²⁹⁾ 그가 도사로서 수련을 하기 전, 어려서부터 『도장』을 탐독했다는 것을 보면 이미 『도장』이 보편적 독서물로 널리 읽혀졌음을 알 수 있다.³⁰⁾ 고려조에 유입된 『도장』은

28) 『정통도장』 수록 『참동계』 계열 도경은 12종이다.

29) 김철웅(2010), 「고려중기 이종약의 생애와 도교사상」, 『한국인물사연구』14, 192쪽. 이종약에 대한 기록은 임춘, 『서하집』(西河集) 권5 「일재기」(逸齋記)에 보인다.

당나라 때 편찬된 『개원도장』이나 송대에 나온 일련의 『도장』 중 하나 일 것이다.

도경(道經)에 황정(黃庭)이란 말이 있는데, “황이란 중앙 토(土)의 정색(正色)이요, 정(庭)이란 가정의 중앙이다.” 하였으니, 이는 중심을 가리켜 이른 것이다. 이는 도가(道家)들이 오로지 심기(心機)를 힘쓰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배덕표(裴德表) 선생이 병으로 관직을 사면하고, 담시산(曇始山)속으로 들어가 일찍이 지황(地黃)을 먹었는데, 인하여 뜰에 지황을 심고는 스스로 별호하기를 황정이라 하였다. 내가 마침 김해(金海)를 갔더니 선생이 찾아와서 나를 보고 황정을 풀이하기를 청하거늘, 나는 말하기를, “선생이 젊어서 성인의 도를 배운 것은 장차 천하에 그 도를 행하려는 것이었으니, 불가불 먼저 이름부터 바르게 해야 한다. 이른바 황정이란 것이 『도장』에 기록되어 있음은 사람들이 다 같이 아는 바이다. 우리 유학하는 자로 그 어찌 이를 별호로 하리요.” 하니, 선생은 말하기를, 옛날에 우리 부자(夫子)께서 예를 노자에게 묻고 나서 제자들이 더욱 증가하였고, 유후(留侯)가 적송자와 더불어 놀고자 한다 하여 후세에서 높이 칭송하였다. 그렇다면 도가가 어찌 유가에게 저버린 일이 있단 말인가. 하물며 나같은 자는 병고로 인하여 화타(華佗)의 오희(五戲)를 배우고, 진인(眞人)과 술사(術士)를 사모하여 나의 수명을 기른 뒤에 배운 바로써 백성에게 베풀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또 내가 호를 한 것은 우연히 일시적인 것에서 나온 것이나 천년의 옛사람과 같아서 해로운 것이 없다.”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홀륭하도다, 선생의 말

-
- 30) 이규경, 앞의 글, “고려에 이르러는 이증약이 산에 들어가 선학(禪學)을 좋아하였다. 뒤에 항해하여 송 나라에 들어가서 황대충(黃大忠)을 따라 친히 도교의 요점을 전수받고 본국에 돌아와 상소하여 현관(玄觀, 道觀)을 설치하여 국가의 재초(齋醮)하는 곳을 삼으니, 복원궁(福源宮)이 바로 그것이다. 『송사』를 상고해 보면, 고려에는 도관이 없었는데 휘종의 대관(大觀) 때에 조정에서 도사를 보내어 고려에 가서 마침내 복원궁을 세우고 도사 70여 명을 두니, 이는 예종(睿宗) 때 무자년(1108, 예종 3)·기축년(1109, 예종 4) 사이였다.”

씀이여, 황정으로써 마음을 가지면 마음을 세울 수 있을 것이요, 황정으로써 약을 하면 백성을 장수하게 할 것이니, 선생이 안으로부터 밖으로 확충해 나갈 것을 나는 이 황정으로 점차 알겠도다.” 하니, 선생은 말하기를, “네. 네.”하였다. (이첨, 「황정설」, 『동문선』 제98권. 고전국역원)

위는 가전 「저생전」의 작가이기도 한 고려말 문인 이첨(李詹, 1345-1405)이 남긴 「황정설」다. 이 글은 『도장』과 그 수록 내용 중에 나오는 ‘황정’이라는 용어가 이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더구나 유가의 선비로서 도가의 중심개념인 ‘황정’을 별호로 삼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도경에 황정이란 말이 있다”는 것은 『황정경』을 의미할 것이다.³¹⁾

조선의 경우는 국가의 법전인 『경국대전』에 『도장』 소재의 도가서의 독서기록을 명시하고 있어 흥미롭다.

본조(조선)에 들어와 『경국대전』 예전(禮典)을 보면, 10가지의 도류(道流)를 뽑는데, 금단(禁壇)을 외고 『영보경』³²⁾·『과의』(科義)·『연생경』(延生經)³³⁾·『태일경』(太一經)³⁴⁾·『옥추경』(玉樞經)³⁵⁾·『진무경』(眞武經)³⁶⁾·『용왕경』(龍王經)³⁷⁾ 중에서 세 경을 읽었다. (이규

31) 『정통도장』의 경우, 『황정경』 계열의 도경이 13종 수록되어 있다.

32) 『정통도장』 1,510종의 도경 가운데 『영보경』 계열은 171종이다. 이중 대표적인 것으로 도홍경의 「동현영보진령위업도」(洞玄靈寶眞靈位業圖; 洞眞部, 譜錄類), 두광정의 「태상영보옥궤명진재참방의」(太上靈寶玉匱明眞齋懺方儀; 洞玄部, 威儀類), 옥수정의 「동현영보재설광촉계벌등축원의」(洞玄靈寶齋說光燭戒罰燈祝願儀; 洞玄部, 威儀類)가 있다.

33) 『정통도장』에 『연생경』 계열 도경이 9종 수록되어 있다.

34) 『정통도장』에 수록된 『태일경』 계 도경은 9종이다.

35) 『정통도장』에 수록된 『옥추경』 계 도경은 4종이다.

36) 조선 초기 소격서에서 읽던 주요 경전 중 하나이다. 『조선왕조실록』 태종 13년

경, 『도가총철』)

이 밖에 김시습과 홍유손, 정희량, 정염, 권극중, 윤균평, 이지함, 곽재우 등이 수많은 도경을 읽고 전수하였음은 당시부터 익히 알려진 사실이며³⁸⁾ 자의(字意)를 풀이하는 데도 『도장』의 도경을 근거로 삼기도 하는

(1413) 조에 다음의 기록이 나온다. “진무 초례(眞武醮禮)를 소격전(昭格殿)에서 행하였다. 소격전의 관원이 아뢰었다. “이 앞서는 여러 초례를 모두 저녁에 행하였는데, 이제 『진무경』을 보건대, ‘5경(更)에 이르러 몸소 향촉(香燭)을 피운다. 정과(淨果)·대추·탕(湯)을 벌려 놓은 자리가 셋인데, 뜻은 한결같이 순결하게 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기고[禱告]한다.’ 하였으니, 청건대, 이 경(經)에 의하여 5경의 초에 행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고전번역원.

- 37) 성현의 『용재총화』에 따르면 국가차원의 기우제를 지낼 때 『용왕경』을 읽었다. “기우제를 지내는 절차는 먼저 오부(五部)로 하여금 개천을 수리하고 발두둑 길을 깨끗이 하게 한 다음 중묘사직에 제사를 지내고, 다음에 사대문에 제사를 지내며, 다음에 오방(五方) 용신에 제사를 베푸나니 동쪽 교외에는 청룡, 남쪽 교외에는 적룡, 서쪽 교외에는 백룡, 북쪽 교외에는 흑룡이요, 중앙 중루 거리에는 황룡을 만들어 놓고, 관리에게 명하여 제사를 지내게 하되 3일만에 끝낸다. 또 저자도(楸子島)에 다 용제(龍祭)를 베풀어 도가자류(道家者流)로 하여금 『용왕경』을 외우게 하고 또 호두(虎頭)를 박연(朴淵)과 양진(楊津) 등지에 던지며, 또 창덕궁 후원과 경회루·모화관 연못가 세 곳에 도마뱀을 물동이 속에 띄우고, 푸른 옷 입은 동자 수십 명이 버들가지로 동이를 두드리며 소리를 울리면서 크게 소리 지르기를, “도마뱀아, 도마뱀아, 구름을 일으키고 안개를 토하여 비를 퍼붓게 하면 너를 놓아 돌아가게 하리라.” 하고, 헌관과 감찰이 관과 활(笏)을 정제하고 서서 제를 지내되 3일만에 끝낸다. 또 성내 모든 부락에 물병을 놓고 버들가지를 꽂아 향을 피우고 방방곡곡에 누각을 만들어서 여러 아이들이 모여 비를 부르며, 또 저자(市)를 남쪽 길로 옮기어 남문을 닫고 북문을 열며, 가뭄이 심하면 왕이 대궐을 피하고 반찬을 줄이고 북을 울리지 않으며 억울하게 갇힌 죄인을 심사하고 중외(中外)의 죄인에게 사(赦)를 내린다.” 『용재총화』 권7, 고전번역원.

- 38) 이규경, 『도가총철』. “단학과 중에 저서하여 전수한 것으로 정염의 『단가요결』(丹家要訣), 권극중의 『참동계주해』, 이지함의 『복기문답』(服氣問答), 곽재우의 『복기조식진결』(服氣調息眞訣)이 그 관건이며, 근세에 허미(許米)가 단학에 대한 공부를 깊이 깨달아 도교의 서적을 많이 소장하고 있었으니, 이는 단학의 시말이다. … 권청은 원나라 설현(契賢)에게 전수하였으며, 설현은 김시습에게 전수하였고, 김시습은 홍유손에게 『천둔검법』(天遁劍法)과 『연마진결』(鍊魔眞訣)을 전수하였으며,

것을,³⁹⁾ 보면 『도장』의 도경이 조선시대에 널리 향유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고소설 연구와 『도장』

이규경은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 역대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과 전생(轉生) 및 혼이 다른 사람의 몸에 붙어서 회생했다는 것에 대해 변론을 펼친 바 있다. 환생과 전생은 고소설에 흔히 등장하는 화소이다. 이규경은 이와 같은 화소를 ‘괴상’(乖常) 즉 일반적 상도(常道)를 어그러뜨리거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괴이한 것’으로 보고 변론을 펼 것이다. 그런데 그가 그러한 ‘괴상함’의 전거로 삼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도장』이다. 그가 나열한 도홍경의 『진고』·『주씨명통기』(周氏冥通記)을 비롯하여 『수신기』, 『산해경』, 『열선전』 등이 모두 『도장』에 수록된 도서(道書)들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러한 기록들이 지닌 ‘괴이함’ 내지 ‘허무맹랑함’을 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괴이함’과 ‘허무맹랑함’은 당시 유가지식인들에게 비판을 받았던 소설의 특성과도 무관하지 않다.

소설적 환상계는 상상력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상상력은 이미지를 만들고 다양한 이미지의 조합은 새로운 세계 즉 환상적 세계를 만든다.

또 옥함에다가 단약을 만드는 요점을 기록하여 정희량(鄭希良)에게 전수하였고, 『참동계』·『용호경』의 비지(祕旨)를 윤군평(尹君平)에게 전수하였다. 윤군평은 광치허(郭致虛)에게 전수하였고, 정희량은 중 대주(大珠)에게 전수하였으며, 대주는 정염과 박지화(朴枝華)에게 전수하였다. 홍유손은 밀양에 사는 과부 박씨 묘관(妙觀)에게 전수하였고, 묘관은 강귀천(姜貴千)과 장도관(張道觀)에게 전수하였으며, 광치허는 한무외에게 전수하였다. 권청은 남궁두(南宮斗)에게 전수하고 또 조운홍(趙云弘)에게 전수하였다.”

39) 이규경, 「자서(字書) 획(畫)이 적은 글자와 음(音)이 많은 글자에 대한 변증설」, 『오주연문장전산고』 경사편1 경전류2 ‘소학’, 고전번역원.

이들의 층위는 ‘상상력-이미지-소설적 환상계’로 상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이미지와 소설적 환상계를 만드는 근원으로서의 상상력은 인류의 유구한 삶의 궤적과 경험적 사유에서 형성된 일종의 ‘원형’을 지니고 있다. 서양의 경우 ‘상상력의 원형’에 대한 학문적 해명을 고구하는 것을 신화문학론이라고 한다. 노드롭 프라이는 문학의 형태란 인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문학적 전통에서 나오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신화에서 나온다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력의 근원을 말할 때는 단순히 문학적 기법과 형태만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다. 상상력이란 인간 존재의 본질을 규명하는 존재론적 철학과 관련하여 고찰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상상력의 원형은 유사한 문화권 내에서 모색해야 한다. 용의 말처럼 문학의 원형은 종족적 인종적인 것이며 대대로 본능처럼 유전되어 내려온 집단 무의식의 내용이기 때문이다.

동양의 경우 문학적 상상력은 인류의 철학적 고민 및 삶에 대한 성찰과 무관하지 않다. 많은 문학이 철학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동양에서는 사람과 관련한 학문인 인문학을 지칭할 때 문사철(文史哲)이라고 한다. ‘사’(史)는 사람들의 경험으로 이루어지고, ‘철’(哲)은 그러한 경험의 결과로 만들어진 인식의 집결체이다. 그리고 ‘문’(文)은 인간의 경험인 사(史)와 사유의 궤적인 철(哲)을 드러내는 방식이다. 이 삼자는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또한 동양의 대표적 사유체계는 유·불·도이다. 삼자는 시기마다 부침의 정도는 다르지만 세발술처럼 각자의 영역을 굳건히 지켜왔다. 그 가운데 특히 소설적 상상력의 근원을 논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 도가사상이다. 도가와 도교는 용어상의 혼동이 있을 수 있다. 도교는 도가가 당조(唐朝) 이후 관방화되면서 붙여진 명칭이다. 본고에서는 도교 이전의 사상까지 포함하여 도가사상이라 하겠다.

그동안 고소설의 사상적 근원에 대한 탐색은 유가에 치우쳐 있었다.

이는 고소설이 본격화 된 시기가 공적 분야에서 성리학이 주류 사상으로 작용했던 조선후기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 조선시대를 유가의 시대 혹은 유교질서가 공고한 시대로 전제하고 이루어진 문학연구는 소설작품에 대해 유가적 영향력을 과장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최초의 소설 논쟁과 중국소설의 영향론 등으로 문학사의 뜨거운 화두가 되어 왔으며, 작가인 김시습 개인의 뛰어난 지적 편력 및 특이한 행보 또한 주목받아 왔던 『금오신화』에 대한 연구를 보면 현 고소설 연구의 사상적 경도를 쉽게 알 수 있다. 애정전기에 속하는 「만복사저포기」와 「이생규장전」을 단종에 대한 절의로 해석하는 관점은 물론, 「남염부주지」를 ‘철저히 유가주의를 구현하며 작가의 성리학적 사상을 집약한 작품’으로 보는 입장은 여전히 지지를 받고 있다. 대다수 김시습의 작품에 대해 이와 유사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이는 개별 작품의 문학적 세계와 무관하게, ‘어린 시절 세종에게 총명함을 인정받고’ ‘약관에 즈음하여 세조의 왕위찬탈 소식에 과거 공부를 그만두고 승려가 되어 떠돌이 생활을 한’ 그의 행적을 개인적 불우 및 단종에 대한 절의와 관련시켜, 그를 ‘철저한 유가사상가’라든가, ‘현실의 부조리에 저항하는 인물’ 혹은 ‘불우한 지식인’으로 보는 전제가 공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가 지식인이 지은 것이니 작품의 성격도 유가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김시습 자신도 「서민」(敍憫)이라는 시에서 밝힌 바 있듯, 그가 글을 쓰는 이유는 ‘세상과 어긋나서이기’ 때문이다. 세상과 어긋남이란 ‘불우’(不遇)를 의미한다. 김시습의 경우 ‘불우’는 그를 방황하게 하였고, 방황은 그로 하여금 장자나 굴원의 글을 읽으며 그들의 심정에 공감하고 그들처럼 ‘원유’(遠遊)하도록 만들었다. 그런데 장자나 굴원의 글은 경직되고 현세적인 유가사상과는 다른 사유를 담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도가적 사유이다. 즉 현실적 ‘불우’의 경험 이 철저한 유가사상가로 하여금 ‘도가적 사유’를 탐색하게 한 것이다. 그

리고 소설은 그러한 일탈의 사유와 근접한 지점에서 창작된다.⁴⁰⁾

도가사상은 불교보다도 오랜 역사를 지니며, 주로 기층문화 속에서 유전(流傳)해 민간의 신앙으로 그 힘을 과시해왔다. 민간을 기반으로 하는 사상이라는 점에서 도가는 소설적 세계관과 무관하지 않다. 소설은 장르 특성상 공적이고 주류적이라기보다 사적이고 비주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소설의 말하기 방식도 도가의 우언·비유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국의 경우, 도가사상이 소설 창작에 미친 영향을 보다 뚜렷하게 볼 수 있다. 대표적 소설장르인 전기, 역사연의, 신마소설은 물론 심지어 현세적 삶을 반영한 세정소설류까지 모두가 도가적 가치관과 일정 관련이 있다. 특히 당대 이후 명·청대까지 이어진 전기는 도가적 색채가 상당히 짙다. 또한 『서유기』로 대표되는 신마류는 ‘취경’(取經)이라는 불교적 틀을 취하면서도 구체적 내용에서는 천상과 용궁으로 대표되는 공간배경과, 옥황상제와 서왕모 및 태상노군을 위시한 천신들, 그리고 81년으로 요약되는 전체 서사에서 도가적 발상이 두드러진다. 특히 요괴들이 당승을 잡아먹고자하는 주된 이유는 ‘불로장생’인데, 이는 도가의 대표적 수행목적 중 하나이다. 장희류 역사연의인 『삼국지』도 당시 사회에 풍미한 도교신앙을 반영하고 있다. 황건적의 난을 주도한 장각 일파가 도교의 『태평경』을 따르는 분파인 것과 도교의 대표적 일파인 오두미교도의 등장이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조선후기에 유입, 번역되어 읽힌 세정소설 『금병매』와 『홍루몽』, 풍자소설 『경화연』 등에서도 짙은 도가적 색채를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은 대개가 우리나라의 소설형성과 발전에 일정 영향을 끼친 작품들이다.

40) 실제로 김시습은 『매월당집』 권17 「천형편」(天形篇)에서 『도장』 소재 도경(道經) 중 하나인 『진무경』과 『연생경』을 인용하고 있다. 김시습이 인용한 『진무경』은 『도장』본 『태상설현천대성진무본전신주묘경』(太上說玄天大聖眞武本傳神咒妙經)이다. 김일권(2001), 「김시습과 조선초기 도교의 천문사상」, 『도교문화연구』15, 344-348쪽. 김시습은 도교 및 『도장』에 대한 이해가 깊었으며 『도장』의 탐독이 그의 글쓰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다.

『도장』은 수천 년에 걸쳐 이루어진 도교 관련 저술을 집대성한 것으로, 동아시아 문학이 지닌 도가적 상상력의 원초적 모습을 제공한다. 『도장』에는 고대 인류가 상상해낸 수많은 공간과 인물이 존재하며 그 기저에는 삶과 죽음에 대한 인류의 원형적 인식이 내재해 있다. 동시에 현대인의 시각으로 ‘이상하게’ 보이는 시공개념 및 존재 간의 소통방식이 ‘정상’으로 수용되고 있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다. 기실 ‘이상’과 ‘정상’을 오늘날과 같이 협소한 개념으로 규정하고 구분하기 시작한 것은 겨우 100여 년 전부터이다. 19세기까지만 해도 동양인의 서사적 세계관 속에는 인어아저씨도 존재했고,⁴¹⁾ 적강한 선녀와 사랑에 빠지거나 환생한 영혼과 결혼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었다. 또한 불사의 소망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도 배척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서사적 세계뿐 아니라 현실적 생활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도 인간은 신적 존재와 함께했으며, 그들과 소통하고 조화롭게 생활했다. 집안에는 터주신이 있었고 부엌에는 조왕신이 있었다. 고려시대부터 전해오는 생활 믿음 중, 한해의 마지막 날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얗게 센다는 이야기는 도교의 사명신앙과 관련한 ‘삼시충’ 때문이다.⁴²⁾ 옛 사람들은 그들을 배척하거나 쫓아내지 않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식을 모색했다. 그런데 소위 서구의 제국주의적이고 폭력적인 ‘근대’가 동양을 침범하면서 이전의 ‘정상적인 것’은 일거에 ‘이상한 것’이 되었고, 그들이 들고 온 과학적 ‘합리성’이라는 무기는 옥석을 구분(俱焚)하는 폐단을 야기했다. 이처럼 100여 년의 지식으로 수천 년의 지혜를 몰아내려함은 실로 무지의 소치라 하겠다. 최근에는 동양신화를 중심으로 지난 한 세기를 반성하고 동양문화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이는 동양고전의 원형이 지닌 가치를 재인식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 것이다.

41) 정재서(2010), 『이야기 동양신화』, 김영사.

42) 정재서(2013), 『삼시충을 기억하라』, 『서울신문』 3월 15일자 ‘열린세상’.

『도장』은 수천 년 동안 이어온 동양인의 보편적 세계인식을 다양한 기법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에 내재한 도가적 사유방식은 동아시아 서사문학이 지닌 상상력의 원초적 모습을 제공한다. 『도장』을 종교사상서로만 보지 않고 문학창작의 근원으로 접근하는 것은, 한국의 고전서사학이 담지한 미적 가치의 근원과 동아시아 서사문학의 원형을 탐색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그동안 고소설의 미학연구는 환상성과 전기성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소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또한 한국고소설이 지닌 미학적 가치의 독창성과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과 일본 등 동일문화권 내 국가들의 문학작품과의 비교연구를 병행하였다. 굳이 전기소설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고소설의 서사세계는 현실계에 기반하면서도 동시에 현실을 개혁하거나 전복하고자 하는 소망이 만들어낸 환상계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설적 환상계를 만들어내는 힘이 바로 상상력이다. 상상력은 인간이 지닌 무한한 창조력이며 그것은 현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에서 비롯한다. 때로는 소설적 환상이 동반하는 낯선 느낌에 독자들은 ‘머뭇거림’을 느끼기도 하지만,⁴³⁾ 그럼에도 소설의 세계에 독자가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은 환상적 세계가 지닌 내적 리얼리티 때문이다. 소설적 환상계는 우리가 사는 세계와 무관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을 만들어낸 상상력에는 오랜 시간 축적된 인류의 경험과 사고 및 소설이 창작된 당대의 현실인식이 타당하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도장』은 바로 ‘오랜 시간 축적된 인류의 경험과 사고’의 원형을 제공한다는 데 그 문학적 의의가 있다.

고소설에 나타난 도가사상의 연구는 그 성과가 적지 않다. 특히 전기소설의 전기성과 환상성을 도가적 상상력과 관련하여 고구한 작업도 비교적 많은 편이다. 특히 상상력과 이미지가 중시되는 최근에는 도가적 발상과 모티프에 대한 관심이 전에 없이 크게 일고 있다. 물론 전통적으

43) 토도로프, 이기우 역(1996), 『환상문학 서설』, 한국문화사.

로 한국사회에서 도교 자체가 지닌 위상이 그리 높지 않았기에 다른 방면의 성과와 비교하여 말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설 연구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적지 않은 연구가 축적되고 있다는 사실은 고소설이 지닌 도가적 성격을 구명하는 작업의 의미를 방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고소설의 도가적 성격과 관련하여, 그동안 주로 김시습과 허균의 작품을 주목하였다. 김시습의 소설 『금오신화』는 유가적 해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도가적 입장에서 접근한 것도 적지 않다. 그의 작품이 담지하는 ‘전기성’, 작품이 묘사하고 있는 신인형 인물과 탈속적 공간, 그리고 신선설화 유형과 유사한 결말구조는 도가적 사유와의 친연성이 짙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김시습의 여러 시문을 모아 검토하면서 전체적 작품경향을 도가적이라 해석한 연구가 있었다.⁴⁴⁾ 그의 소설에 대해서는 주로 『취유부벽정기』에 대하여 도가적, 특히 신화적 전용에 대한 논의가 주목할 만하다.⁴⁵⁾ 물론 이 논의는 김시습 소설을 전면적으로 연구한 것은 아니고 한국의 도가사를 일람하는 것이지만, 체계적으로 도가문학을 정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국문학계의 경우 최근 『금오신화』의 각편들을 대상으로 작품이 지니는 미학을 도가적 상상력에 기반하여 탐색한 연구가 나오고 있다. 『취유부벽정기』의 경우 속계와 선계의 경계역을 중심으로 고찰하였고, 『만복사저포기』는 ‘입산채약’에 중점을 두고 작품의 결미를 선인의 채약이 지닌 전통적 의미와 연결하여 풀이하였다.⁴⁶⁾

도가문학을 거론할 때 빠지지 않는 이가 허균이다. 허균은 주로 전(傳)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도가와 관련성이 논의되었다. 그의 전은 대개가

44) 안동준(1998), 『김시습 문학과 도교사상』, 『국문학과 도교』; 유승국(1979), 「매월당의 사상과 문학: 매월당의 유학 및 도교사상」, 『대동문화연구』13.

45) 정재서(1998), 「한국 도교문학에서의 신화의 전유」, 『아시아문화』14.

46) 김수연(2009), 「취유부벽정기의 경계성에 대하여」, 『한국고전연구』19; 김수연(2011), 앞의 논문.

신선전 내지 일사전(逸士傳)의 성격을 띠고 있어 신인과 친연성이 짙기 때문이다. 특히 『남궁선생전』은 직접적으로 도가의 양생 및 수련과정을 그리고 있어 본격적 도교문학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 따라서 『남궁선생전』에 대한 도가적 논의는 이른 시기부터 등장하였다.⁴⁷⁾ 그밖에도 허균 문학 일반에 대한 도가사상을 고찰한 연구가 적지 않다.⁴⁸⁾ 기타 작품으로는 영웅소설·연암소설·『심청전』·『구운몽』·『삼한습유』·『숙향전』·『수이전』·『천수석』 등을 대상으로 도가적 상상력에 주목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고소설의 환상성과 상상력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지속되었으나, 대개의 논의는 소설 창작의 근원에 대한 탐구보다 서사기법이나 화소차원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환상성 자체의 근본적 성격 규정도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하게 용어와 기법만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⁴⁹⁾ 이는 개별 작품론뿐 아니라 비교문학 연구도 마찬가지이다. 전기문학의 경우를 보면 작품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사 측면 즉 형식적 측면에서 다루는 경우가 많았다. 즉 서사단락을 중심으로 인귀교혼(人鬼交婚)이나 이계체험(異界體驗) 등에서 확인되는 전기적·환상적 화소를 비교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작업은 비교문학연구에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제는 물리적 경계로서의 국가를 초월하여 장르양식이 공유하는 창작 전통의 근원을 탐색할 때이다. 즉 비교연구의 시각과 방식이 수평적·공시적·개별적 비교에서 수

47) 최삼용(1978), 「남궁선생전에 나타난 도선사상 연구」, 『한국언어문학』16; 최창록(1982), 「신선전과 신선소설 장르의 설정」, 『인문과학연구』1; 박영호(1990), 「허균 문학에 나타난 도교사상 연구」, 『동아시아 문화연구』17.

48) 이장원(1994), 「허균 문학에 나타난 도교사상 연구」, 국민대 석사논문; 김병익(1996), 「허균의 도교사상에 대한 연구: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원광대 석사논문; 박영호(1990), 「허균 문학에 나타난 도교사상 연구」, 『동아시아 문화연구』17.

49) 정환국(2008), 「고전소설의 환상성, 그 연구사적 전망」, 『민족문화사연구』37, 민족문화사연구소.

직적·통시적·통합적 탐색으로 변화할 때인 것이다.

또한 『도장』에는 매우 구체적인 묘사와 문학적인 기술이 담겨있어, 문학 연구의 새로운 영역을 열어줄 것이다. 엄격히 말해 『도장』은 종교사상서이며, 『도장』 연구는 종교철학분야에 속한다. 이것을 문학 분야인 소설적 상상력과 관련하여 고찰하고자 하는 본 작업은 기실 학문간 경계를 초월하는 종합적 연구가 될 것이다. 따라서 『도장』은 문학 연구뿐 아니라 종교철학은 물론 자연과학과 생태학 등의 기타 학문분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도장』이 추구하는 ‘조화로운 세계관’은 현대인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연구는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길은 걸어가면 이루어진다’(道行之而成)라는 장자의 말처럼, 어렵더라도 시작하고, 반복하여 진행하다보면 언젠가는 또 하나의 새로운 학로(學路)가 개척되리라고 생각한다.

5. 마치며

『도장』을 고소설의 원형적 텍스트로 접근하는 것은 서사적 상상력에 대한 탐구작업이다. 한국고소설의 서사적 상상력을 중국의 『도장』에서 찾는다고 할 때 그 관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물론 이에 대해 비교문학 연구의 일환이라 답할 수도 있으나, 기실 『도장』에 수용된 서사적 상상력은 근대 이후에 그어진 물리적 국경개념을 초월한다. 상상력 자체가 인류 보편의 창조적 동력임은 말할 것도 없으며, 굳이 문화권을 나누어 동양의 경우만 본다면, 일반적으로 그 기원을 하나라 우임금 때 편찬되었다는 신화지리서 『산해경』에서 찾는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도장』본 도경 중에서도 대표적 도서(道書)인 『산해경』이 이

른바 중원이라고 하는 중국 내륙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연(燕)·제(齊)·초(楚)를 포괄하는 고대 동이문화권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이 최근 많은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⁵⁰⁾ 동아시아 문화권의 최초 신화서가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이문화권에서 형성되었다는 점은 한국 고전문학에서 발견되는 환상성의 근원을 확인하는 작업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더욱 주목할 것은 『도장』 소재 초기 도교 경전 가운데 발해국(698-926) 사람이 집필한 도서(道書)가 수록되어 있다는 점이다.⁵¹⁾ 이 시기 중국은 도교를 국교로 삼았던 당조(唐朝)였는데, 발해인 이광현(李光玄)이 동아시아를 넘나들며 도교 수련을 행한 수련서를 남긴 것이다. 『정통도장』 동진부(洞真部) 방법류(方法類)에 실린 『금액환단백문결』(金液還丹百問訣)이 그것이다. 이밖에도 이광현은 『태상일월혼원경』(太上日月混元經), 『해객론』(海客論), 『금액환단내편』(金液還丹內篇)을 저술하였다.⁵²⁾ 이러한 사실은 『도장』이 오히려 우리의 원천적 사유와 더욱 밀접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 글은 구체적인 작품론에 앞서 『도장』이 갖는 문학적 성격 특히 고소설 연구에서 『도장』이 서사적 상상력의 원형으로 고려될 수 있는 텍스트임을 밝히는 서론이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향후 고소설에서 확인되는 도가적 상상력과 공간 상상력과 인물 형상 그리고 생사관의 측면에서 고찰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들이 고소설 연구의 외연을 넓히고 깊이를 더하는 데 기여하기를 소망한다.

50) 『산해경』의 편찬시기에 대해서는 하나라부터 위진 시대까지 다양한 주장이 존재하나 동이계통의 도교서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중국 학자들도 그 타당함을 인정하고 있다. 정재서(1994), 『불사의 신화와 사상』, 민음사, 23~25쪽. 또한 고고학적 발굴로 인해 황하문명보다 앞서는 요하문명의 존재가 드러나며 고대의 변방문화가 지닌 선진성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부사년, 정재서 역(2011), 『이하동서설』, 우리 역사연구재단.

51) 발해는 그 국경이 요하문명권을 포함한다.

52) 이광현, 이봉호 역(2011), 『발해인 이광현 도교저술 역주』, 한국학술정보.

참고문헌

- 『도장』, 대북 예문인서관 영인본.
『중화도장』, 화하출판사, 2004.
김부식, 이강래 역(1998), 『삼국사기』, 한길사.
김수연(2009), 「취유부벽정기의 경계성에 대하여」, 『한국고전연구』19.
김수연(2011), 「소통과 치유를 꿈꾸는 상상력, 속향전」, 『한국고전연구』23.
김시습, 『국역 매월당집』, 고전번역원.
김시습·구우, 김수연 외 역(2010), 『금오신화 전등신화』, 미다스북스.
김일권(2001), 「김시습과 조선초기 도교의 천문사상」, 『도교문화연구』15.
김철웅(2010), 「고려중기 이중약의 생애와 도교사상」, 『한국인물사연구』14.
부사년, 정재서 역(2010), 『이하동서설』, 우리역사연구재단.
서거정, 『동문선』, 고전번역원.
안동준(1998), 「김시습 문학과 도교사상」, 『국문학과 도교』.
이광현, 이봉호 역(2011), 『발해인 이광현 도교 저술 역주』, 한국학술정보.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 고전번역원.
잔스창, 안동준·린샤오리 역(2011), 『도교문화 15강』, 알마.
정재서(1998), 「한국 도교문학에서의 신화의 전유」, 『아시아문화』14.
정재서(2010), 『이야기 동양신화』, 김영사.
정재서(2013), 「삼시충을 기억하라」, 『서울신문』 3월 15일자 ‘열린세상’.
정환국(2008), 「고전소설의 환상성, 그 연구사적 전망」, 『민족문학사연구』37, 민족문학사연구소.
조선희(1998), 「당 현종시기 도장 편찬에 관한 일 연구」, 명지대 석사논문.
조재삼, 『송남잡지』
토도로프, 이기우 역(1996), 『환상문학 서설』, 한국문화사.
한국 도교사상연구회, 『한국도교와 도가사상』, 아세아문화사, 1991.
한무외, 이종은 역(1998), 『해동전도록·청학집』, 보성문화사.
金命壽(2002), 「道藏輯要와 蔣予蒲」, 『도교문화연구』17.
潘燕(2012), 「道藏中的宋代小說研究」, 安徽大學 碩士論文.
汪小艷(2012), 「道藏中的唐代小說研究」, 安徽大學 碩士論文.

鄭天星(2002), 『國外的道藏研究』, 『國外社會科學』, 第3期.
周芹(2012), 『道藏中的元代小說研究』, 安徽大學 碩士論文.
陳國符(1963), 『道藏源流考』, 北京 中華書局.

원고 접수일: 2013년 4월 30일

심사 완료일: 2013년 5월 20일

게재 확정일: 2013년 5월 28일

ABSTRACT

A Study on *Daozhang* as a Prototypical
Text of a Classical Novel

Kim, Soo-youn

Daozhang, which is a series of Taoist books and scriptures, is not only a treasure house of enormous thoughts and stories but also a book on religious thought. It has different kinds of images and imagination systems, and also talks about oriental philosophical experiences and the facts of life in various ways. Therefore, the narrative imagination of *Daozhang* represents much, as an origin of literary imaginations. Studies on Korean Classical Novels have examined the relation between Taoism and Taoist imagination, but current scholarship has not yet approached issues such as the origin of imagination or the prototypical text.

In China, a national compilation of *Daozhang* was undertaken on a large scale, covering Taoist hermit tales embodying early Taoist thought to Taoist scriptures of the periods of the North and South Dynasties, Sui and Tang, as well as later offshoots. In Korea, efforts at publishing or translating were not undertaken autonomously, but from the Three Kingdoms period, Taoism and *Daozhang* were introduced and Taoist scriptures were enjoyed and passed down widely amongst literary people.

Taoist thoughts have a longer history than Buddhism, and in case of China it was a state religion for a while. However, in its dissemination, it played an important role as a folk religion in the basic culture. As the thoughts of the people, Taoism is associated with a fictitious outlook on the world. Novels are also linked with Taoism in terms of their closely private and non-mainstream characteristics, as well as their expressive techniques, such as allegories or comparisons. It is possible to look for Taoist imaginations in Korean or Chinese novels, and novelist such as Kim Siseup pored over the Taoist Scriptures, making use of them in his writings. Some views that suggest *Daozhang* as a prototypical text of classical novels demonstrate the huge potential for new possible explorations in the study of classical novels, which until now have been focused on Confucian discussion and vision. In addition, we can broaden the scope of East Asian comparative narratology and present a profound viewpoint for it.